

“ 주님, 왜 우십니까? ”

■ 이종윤 원로목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주님께서 왜 울고 계십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눈가에 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까? 배신의 쓴잔을 받으시면 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뚝이 세워진 십자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찬가와 자랑과 찬평(讚評)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보시기에 민망하여 울고 계신 것입니까? 피 묻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은 원죄를 안고 싸구려 축복이나 팔고 고난 없는 성공품을 전매하며 신앙의 지조마저 상실한 변모된 이 시대의 교회 아닌 교회를 보시고 견딜 수 없어 그토록 슬프게 보여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공(公)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하고 지루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은 전체가 예배라는 미명하에 공(公)예배는 가급적 축소 또는 대처시킬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고 친교와 기도회로 모여 효과적 실용성을 찾는 예배 아닌 집회를 강조하며 흥미 중심 오락성 흥행몰로 예배가 변질되고 있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 세우신 목사 칭호보다 학문적 업적도 없이 박사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양강좌 수준보다 못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칭 성직자라 하지만 자기 기분이나 내는 카우보이들이 되어 양의 머릿수나 세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괴로워 울고 계십니까?

바산의 살찐 암소 같은 년들이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와 독사의 자식들이 책망하시던 세례 요한이 없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변신한 가룟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시고 안타까워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21세기 첨단과학이 사람들을 광분시키고 혁명적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점차 변영과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이 울고 계시니 어찌 된 것입니까?

질병과 재난, 굶주림과 억눌림에 울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교회 확장이나 하는 것을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소욕에 찬 지도자들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 싸움이나 하고 심지어 금권과 폭력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점령하려 하니 불꺼진 등잔이요, 맛 잃은 소금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비통한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하는 마음까지 드셨기에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이 그토록 슬프게 보인 것입니까?

불의가 참을 핍박하고 거짓이 진리를 조롱하는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주님 앞에 무릎꿇고 비읍나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놈부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근심감이 자랑감 되게 하옵시고 일감이 일꾼 되고 싶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한국장로신문 2011년 8월 6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국의 달 두번째 주일,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가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주에도 오전 5시2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다 함께 마음을 다해 동참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흥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61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Senior Pasto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교회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

■ 역대상 11:1-9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려는 마음가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룬 것에는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와 교육의 양극화 심화, 가치관의 혼동,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 북한과의 평화문제 등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인데 국가적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건설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9절) 말씀은 다윗시대의 강성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 위기의 국가상황
 10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밀려들어왔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1)국가지도부가 괴멸했습니다. 2)지중해 해변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곡창지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3)사울을 추종한 10지파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4)더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의 신앙적 혼돈과 고통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10:13,14) 문제의 핵심이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즉 총체적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나라를 책임지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방향이나 정책이나 모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의 ‘점점 더 강성해 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2.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다윗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나갔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포상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국장 수준의 장례로 그를 예우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후손인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게 했습니다.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3절) 드디어 12지파 전체의 마음을 얻어 전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 2:1)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은 교회가 힘써 감당할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보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 강성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3. 도전하는 마음
 다윗은 왕이 된 후 세 가지 중요한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첫째,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점령한 후 시온성이라 명하고 수도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둘째, 국가제도의 정비입니다. 중앙집권형의 왕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의 통치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성공하여 다윗의 시대는 가장 변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대상 14:17) 유대왕국의 역사에서 ‘다윗처럼 했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선정을 펼쳤다는 평가였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통치자였음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흥망의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시 127:1)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66:6-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7(삼위일체)...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70(7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대상 11: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16(26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1:1-2 인 도 자
 찬 송 254(186) 다 함 께
 기 도 김정훈 집사
 찬 송 302(408) 다 함 께
 성 경 행 24:10-2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 설 교 자
 * 찬 송 242(23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경자4 권사 II부: 최진이 권사
 성 경 행 25: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상소하는 사도바울 ...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민·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 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나나(대상 11:9)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홍해작전 본부회의 / 12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 리브가 전도회 / 12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에스터 전도회 / 15일(수) 오후 1시 8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이번주 심방 일정
6-1, 6-7, 4-6, 5-8, 8-7 다락방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유명순	1-6	리브가	본인	김성주5	8-5	바울	이순영

13. 세례 교육 및 문답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교육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602호

- 세례 문답 : 6월 12일(주일) 오후 2시 609호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장례

- 故 김태삼 집사(5교구 조속자 권사의 부군) / 6월8일(수) 별세, 6월10일(금)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07명	492명	1,899명	408명	2,583명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듯이 또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면 그가 한 일을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일이 실통치 않다고 하여 일꾼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에게서는 설령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일 수도 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에서 그를 재인식하고 발견해야 한다.

무익한 자를 유요한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평가결상을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